

직원 근무복 세탁용역 작업지시서

2026. 09. 23. (수)

총 무 팀

1

일반사항

1. 규칙

“계약상대자”는 공중위생관리법,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(보건복지부령 제1159호),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, 소비자 피해 규정 등 근무복 세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. 다만, 간호사복 등의 근무복 세탁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 2조 2호에 의한 “오염세탁물”과 구분하여 반출 및 세탁·납품하여야 한다.

2. 운영 시간

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의 세탁물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요일에 오전 08:30부터 오후 17:30까지 운영하며 “병원”이 지정한 장소에 반출·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운영 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 가능)

3. 운영 방법 및 배상

- ① “병원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반출 및 납품(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)이 이루어져야 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분할 반출 및 납품이 가능하나 납품일은 반출일로부터 최장 5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세탁물의 입·출고 시 “병원”이 지정하는 자의 검수를 필한 후 실시하며, “계약상대자”의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의 동일 품목의 신품 제작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세탁물 반출 및 납품 확인서를 근무복 종류별, 부서별, 이름별로 정리한 후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대금을 청구한다.
- ④ 세탁물은 각 부서에 방문하여 수거 및 출고,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서의 수는 약 60개로 병원 사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.
- ⑤ 수거 및 납품한 세탁물 정보는 담당 상주 인력이 병원 전산 프로그램에 기록하여 병원 담당 부서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세탁물 납품 시 Number Tag 부착, 납품 확인서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(단, 업체별 운영 방식 제안으로 인한 협의 가능)
- ⑦ 세탁물 납품 후 근무복 착용 직원이 확인하여 파손, 다림질 불량, 육안으로 발견되는 먼지 및 이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 및 악취로 인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근무복에

대하여는 반품하거나 세탁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.

- ⑧ 세탁물의 수집, 보관, 운반 및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⑨ 세탁물의 세탁 시 정전기 방지를 위해 섬유유연제를 필히 사용한다.
- ⑩ 연간 세탁 예정량에 관계없이 세탁물을 증감할 수 있다.

4. 세탁물 포장

“계약상대자”는 세탁물의 입고 시 품목별로 “병원”이 지정한 수량에 맞게 포장하며, 불출 시 비닐포장을 하여야 한다. (단, “병원”의 요청 시 변경 가능함)

5. 운영 장소

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“병원”이 운영 장소 및 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용하여야 한다.

6. 인력

- ① 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해 1명 이상의 병원 상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, 필요시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② 세탁물 수거 및 납품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.
- ③ 상주 인력의 출퇴근 시간 등 근태 관리에 대해서는 “계약상대자”의 규정에 따른다. 단, 필요시 “병원”이 요청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상주 인력의 근무 태만 및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세탁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주 인력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

7. 세탁 水

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의 근무복 세탁 시 폐수 5종을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하지 않는다.

8. 기타

- ① 세탁물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② 작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,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2

소재 및 종류별 세탁 방법

1. 면

- ① 중성세제(표백성분 없는 울샴푸 등)로 단독 손세탁하여야 한다.
- ② 세제를 완전히 용해시킨 물에 잠겨두지 말고 단시간 세탁 후 세제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행군 후, 세탁망에 담아 기계탈수 한 후, 그늘건조대에서 건조하여야 한다. 옷걸이에 걸어 건조하면 젖은 무게로 인해 늘어져 형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- ③ 반드시 세탁망에 담귀 탈수하여야 울트임, 뜯김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④ 세제잔여분이 남으면 탈색의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번 충분히 행귀야 한다.
- ⑤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 의류의 탈색, 변색 또는 섬유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강한 약품이나 부분세탁 금지
- ⑥ 섬세한 경우 기계세탁은 절대 금지

2. 나일론 제품

- ① 물세탁시 짙은 색상과 밝은 색상은 이염될 우려가 있으니 단독 및 분리 세탁하여야 한다.
- ② 세탁 시 찬물에 중성세제(울샴푸)가 완전히 녹은 물에 단시간 세탁하고, 세제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행군 후 세탁망에 담아 탈수하여야 한다. (세탁망 사용 시 보풀이나 뜯김 등의 손상 발생을 방지)
- ③ 배색이 있거나 짙은 색상의 경우 이염의 우려가 있으니 단시간 세탁하여야 한다.
- ④ 옷걸이를 사용하여 그늘에서 건조하여야 한다.
- ⑤ 장시간 일광노출은 변색 및 탈색이 우려되오니 피하여야 한다.
- ⑥ 장식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따로 분리하여 뒤집어서 세탁하여야 한다.
- ⑦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 의류의 탈색, 변색 또는 섬유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강한 약품이나 부분세탁 금지
- ⑧ 상품을 화기 근처에 방치하거나 착용 후 화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3. 모

- ① 특성상 수분, 열, 마찰 등에 의해서 수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누액에서는 서로

영커 수축이 심하므로 오랫동안 착용하기 위해 반드시 드라이클리닝하여야 한다.

- ② 모 제품에 구김이 심한 경우는 수증기가 많이 서린 목욕탕에 걸어두면 모 특성상 구김이 퍼져서 다른 의류와 분리하여 드라이하고 밝은 색상은 단독 드라이하여야 한다.
- ③ 드라이 시 단추는 은박지로 싸고 지퍼를 채운 후 드라이하여야 한다.
- ④ 강한 마찰과 힘에 의해 보풀, 원단 털 빠짐의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.

4. 모 혼용

- ① 모 100%의 경우 반드시 드라이클리닝하여야 한다.
- ② 손세탁시 중성세제(울샴푸)가 완전히 녹은 찬물(냉수)에 담귀두지 말고 바로 세탁하고, 세제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헹구어 준 후 세탁망에 담아 기계 탈수 후 형태를 잡아 그늘에 뉘어서 건조하여야 한다.
- ③ 세제잔여물이 남을 경우 탈색이 되고 장시간 담귀둘 경우 이염의 우려가 있으며 젖은 상태로 옷걸이에 걸어 건조할 경우 길이가 늘어나는 등의 형태 변화가 생기므로 특히 주의하여 형태를 잡아 건조하여야 한다.
- ④ 손세탁 가능한 제품이라도 처음 1~2번은 드라이클리닝하여야 옷의 윤택과 형태가 오랫동안 보존되므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여야 한다.

5. 울 제품

- ① 중성세제(울샴푸)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세탁하고 장시간 침지하거나 과도한 마찰 및 비틀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세탁 및 탈수 시 과도한 마찰로 인하여 수축, 변형 및 보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③ 세탁 후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, 형태를 정돈하여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건조하여야 한다.
- ④ 건조 및 다림질 시 과도한 열을 가하지 않으며, 소재의 수축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6. 데님

- ① 이염 및 탈색의 우려가 있으므로 색상 및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이염 우려가 있는 제품은 다른 제품과 분리하여 세탁하여야 한다.
- ② 저온의 물에서 제품을 뒤집어 세탁하고, 장시간 침지하거나 솔·빨래판 등을 이용한 강한 마찰 및 과도한 부분 세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세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고, 탈수 시 과도한 힘으로 인한 수축·

변형 및 원단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세탁 후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, 직사광선 및 과도한 고온건조로 인한 탈색·수축·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하여야 한다.

7. 폴리우레탄 코팅제품 및 폴리우레탄사(스판텍스) 사용 제품 등

- ① 원단 특성상 물이 빠지므로 특히 밝은 색과 함께 세탁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.
- ② 미지근한 물로 뒤집어서 세탁하시고 충분히 행구어 주어야 한다.
- ③ 표백제 등 소재의 변색·탈색 또는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강한 약품의 사용을 피하고, 세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행구어야 한다.
- ④ 고온 세탁·건조 및 과도한 열처리를 피하고, 폴리우레탄사의 탄성 저하 또는 코팅층의 박리·균열·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온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
8. 레이온

- ① 수분을 흡수한 상태에서 원단의 강도가 저하되고 형태가 변형될 우려가 있으므로, 장시간 물에 담가두지 않고 단시간 세탁하여야 한다.
- ② 세탁 시 원단을 강하게 비비거나 비틀지 않아야 하며, 강한 기계적 마찰 및 과도한 탈수로 인한 늘어짐·수축·형태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③ 세탁 후에는 젖은 상태로 쌓아두거나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품의 형태와 주름을 정돈한 후 신속하게 건조하여야 하며, 젖은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등 원단에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.
- ④ 건조 및 다림질 시 원단의 수축·변형 및 광택 발생에 주의하고 적정 온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
9. 블라우스 등

- ① 무지색의 제품은 깃 등에 땀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땀을 흘린 후(젖은 착용 후) 즉시 세탁하여야 한다. 잘 빠지지 않을 경우는 브러쉬로 가볍게 세탁하여야 한다.
- ② 흰색 제품의 경우 염소계(락스류) 표백제를 사용하면 깃이나 카우스의 심지가 황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- ③ 깃 부분에 파마액, 화장품이 묻게 되면 색상이 변색(탈색)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- ④ 세탁 후 다림질할 때에는 약간 습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.
- ⑤ 깃 카우스는 잘 펴서 다림질하여야 한다.

10. 기타 소재 및 종류

“병원”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3

유의사항

1. 드라이클리닝 시 유의사항

- ① 드라이클리닝이란 유기용제 등 적정 세정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방법으로 물 세탁시 손상되기 쉬운 모, 견, 아세테이트 또는 세탁 견뢰도가 낮은 염색물 등은 드라이클리닝을 하여야 한다.
- ② 니트 제품이나 기모가 긴 제품은 망에 넣어서 드라이클리닝하여야 한다.
- ③ 고급단추(자개단추, 가죽단추 등)은 클리닝 과정에서 변색되거나 거칠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떼어서 드라이클리닝하여야 한다.
- ④ 밝은 색의 경우 반드시 깨끗한 용제로 드라이클리닝하여야 한다.
- ⑤ 오염 및 얼룩이 묻었을 경우 즉시 클리닝하여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.

2. 다림질 시 유의사항

- ① 셔츠 및 블라우스 다림질 순서(팔 - 소매 - 앞판 - 뒤판 앞쪽 - 어깨 - 카라)
 - 셔츠 및 블라우스는 팔 부분부터 다리며 양쪽 봉제선이 뒤로 가게 한 다음 다리는 것이 중요하다.
 - 소매는 양쪽으로 잡아당겨 안쪽 끝부분에 다리미 끝을 밀어넣고 누르듯이 다림질 한다.
 - 뒤판을 다림질할 때는 안쪽에서 다려야 다림질 후에 번들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.
 - 어깨의 봉제선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양손으로 쥐고 잡아당긴 다음 다리미 판의 끝부분에 고정시켜 다림질하면 쉽게 다린다.
 - 소매에서 어깨 부분을 향해 다리는데 다리려는 부분의 반대편 옷자락을 당기면서 다림질하면 잘 다려진다.
 - 앞판은 뒤판 위에 겹쳐놓고 손으로 주름을 잘 펴준 다음 다린다.
 - 등판 윗부분에 있는 요크 부분도 안쪽에서 눌러줘야 다리기도 쉽고 모양도 살릴 수 있다.
 - 카라를 다릴 때는 뒷부분부터 다려야 겉모양이 비뚤어지지 않는다. 다리미의 끝부분을 사용하여 카라의 테두리에서 중심을 향해 다린다.
- ② 바지 순서(다리 부분 안쪽 - 바깥쪽 - 엉덩이 부분 - 앞 지퍼와 허리 부분)
 - 바지를 다리기 전에는 안쪽에 있는 안감과 솔기를 정리한 다음 바지 앞 주름을 잡고 한쪽 바지자락이 반대편에 겹치도록 하여 펼쳐놓고 시작한다.

- 다리 부분 안쪽을 드러내 놓고 모양을 정돈 후 다리기 시작하여 다리려는 부분의 반대편 옷자락을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잡아당기면서 다리면 주름이 쉽게 펴진다.
 - 다리 부분 안쪽을 다린 다음에는 바깥쪽을 다린다. 바지자락에서 허벅지를 향하여 여러 번 다린다.
 - 허리에서 지퍼쪽을 향해 여러 번 반복해서 다려야 바지 앞부분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.
 - 마지막으로 바지 뒤 엉덩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린 후 옆 솔기를 봉제선에 맞춰 정돈하여 다린다. 엉덩이 부분을 다릴 때는 우마를 사용하면 편리하다.
- ③ 열에 비교적 약한 제품들은 저온으로 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